

Sea you, KIMA WEEK!

7일간의 다채로웠던 축제!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에서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KIMA WEEK 축제는
대한민국 해양레저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KIMA 2014
WEEK

KIMA 2014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국내 유일 해양레저 종합 페스티벌

-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개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KIMA WEEK 2014'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관계자, 요·보트 비즈니스 CEO, 학계 및 일반국민 포함 약 40,000명이 참석하였다. '세계적인 해양레저 페스티벌'을 지향하는 KIMA WEEK 2014. 그 7일간의 행적을 훑어본다.

[개막식(Grand Opening)과 국제 컨퍼런스]

9월 30일, KIMA WEEK 개막식(Grand Opening)과 국제 컨퍼런스를 위해 국내외 많은 인사와 관람객 500여 명이 자리를 채웠다. 개막식에서는 '글로벌 수퍼 요트 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탈리아 해양산업협회(UCINA) 사무총장인 Lorenzo Pollisardo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부산 MBC 채널에서 60분간 생방송되어 안방에서도 개막식의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개막식 종료 후 곧바로 진행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중·일·러 간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아시아 핵심 4개국의 해양레저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동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모인 이 현장은 지난 10월 5일, 부산MBC 채널에서 60분간 녹화방송 되었다.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2014)]

KIMA WEEK 2014의 프로그램 중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바로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다. 120개사 818개의 홍보부스가 설치되고 약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관람한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보·요트 전시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상담회, Boat of the Year Awards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질 높은 관람이 되도록 하였다.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2014)]

KIMA WEEK 2014 의 프로그램 중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바로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이다. 120개사 818개의 홍보부스가 설치되고 약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관람한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보 · 요트 전시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상담회, Boat of the Year Awards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질 높은 관람이 되도록 하였다.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긴다' 는 KIMA WEEK 2014의 모토에 알맞게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 행사도 이루어졌다. 축제 후반부, 태풍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달빛 수영대회와 일부 무료 요트 승선 체험이 취소되었지만, 그밖에 어린이요트대회,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Marine BIFF Zone 등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레저시설 이용 촉진, 마리나 개발 활성화,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 한국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대국민 저변확대를 지향해 온 KIMA WEEK 2014. 해양레포츠 관계자들은 부산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프로그램이 융합되어 향후 영향력 있는 축제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트쇼의 차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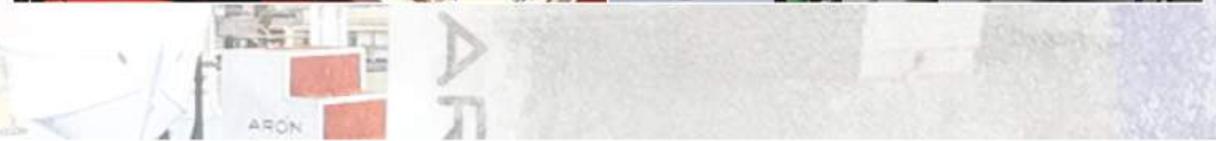
-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성료

국내외 요트, 보트 최신 제품과 해양레저산업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2014)이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부산 BEXCO 전시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상·육상 전시회를 동시 개최하고, 최다 요트·보트 완제품을 전시하여 신생 보트쇼 같지 않는 스케일을 자랑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뉴질랜드 등 총 7개국 120개사 822개의 홍보부스가 설치되었고 약 12,000여명의 관람객들이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채웠다. 또한 개막 첫 날 500만불의 수출 계약 체결 및 기술제휴 협약식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튿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국내 요트, 보트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요트, 보트 완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바이어 60여 개사가 대거 참석하였다. 이번 상담회에는 요트, 보트 완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내실 있는 해외 바이어 60여 개사가 참석해 총 175건 1천102억원의 상담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이밖에 세미나, 갈라 디너 파티(Gala Dinner Party), 올해의 보트상 시상식(Boats of the Year 2014 Awards)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참여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 고급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도 가졌다.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요·보트 위주의 전시회를 지향하여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B2B 성격을 가진 거래 위주의 전시회로, 국내외 요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후문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한 바이어에게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단기간 거래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중소형 레저선박 제조 산업 육성하여,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와 지역 조선기자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해양레저지역

- 가장 빨리 해 뜨는 바다, 진하

울산의 해수욕장 하면 역시 지역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진하 해수욕장이 제일이다. 진하 해수욕장은 여름 성수기가 되면 하루 수용인원이 5만여 명이나 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담기 위해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진하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수질이 제일 깨끗하고 수온이 알맞아서 서늘한 가을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겨울이 오기 전, 바다냄새와 소나무 향이 어우러지는 진하 해수욕장에서 짜릿한 해양레저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윈드서핑

- 해마다 20대~40대의 남녀 약 1~2만 명이 윈드서핑을 타기 위해 진하 해수욕장을 찾는다. 진하 해수욕장 인근의 마우이섬에서 윈드서핑을 대여하고 있다.



비치발리볼

- 비치발리볼은 모래사장장에서 하는 배구를 말하며 수영복을 입고 2~4명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하기도 한다. 진하 해수욕장에서는 특설 경기장을 만들어 매년 울산 진하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약 3일간 개최한다. 대회 우승팀은 8,000달러, 준우승팀은 6,000달러, 3위는 4,000달러 등 총 25,000달러의 상금을 주며 올해는 한국팀을 비롯해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중국, 일본, 한국 등 9개 국가에서 모두 10개 팀이 기량을 겨루었다.

■ Check Point

☞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

- 매년 전 세계 해양도시를 투어 형식으로 순회하며 진행되는 세계윈드서핑대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울산 진하에서 열린다. 울산 진하 세계윈드서핑대회는 2007년부터 국제프로서핑선수협약회가 주관하는 세계대회로 승격하였고 상금이 5만 5천 달러로 상위권에 속한다. 올해는 주최측 사정으로 인해 대회가 취소 되었지만, 2013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30개국 80여 명의 최정상급 세계윈드서핑 선수들과 국내선수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치며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 간절곶 등대

-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간절곶은 전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으로 유명하다. 등대 주변에는 유채꽃과 진달래꽃 등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꽃들과 주위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한 데 어우러져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또 주변에 서생포왜성과 나사봉수대, 온양 옹기마을 등의 관광명소가 즐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양레포츠

- 이색요트대회부터 해양레포츠 무료체험까지



KIMA WEEK 2014가 종전의 해양레저 축제와 차별화 된 가장 큰 점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 저변을 확산하자' 는 취지였다.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의 '해양레저' 는 그저 값비싼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KIMA WEEK 2014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 예약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는데,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크루즈요트와 모터보트 승선 체험 프로그램에는 약 2,15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와 동시, 연계 개최되는 'Marine BIFF ZONE'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영화인과 영화제 관계자 및 영화제 참석자들에게 요트 무료체험기회가 제공되었다.

KIMA WEEK 2014에서는 체험 프로그램 외 어린이 요트대회도 진행되었다. 행사가 열린 10월 4일, 5일에는 부산이 태풍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요트경기장 근처에서 간소하게 경기한 것이 조금 아쉽지만,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에 임하는 꿈나무들의 모습은 어느 프로선수들 못지않은 열정이 가득해보였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은 국내외 관람객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요트에 대한 인식 전환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하여 시민들이 해양레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KIMA WEEK 사무국이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KIMA WEEK 2014는 행사를 즐기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최근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를 받기 원하시면 komalnet@naver.com로 수신을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뉴스레터' 를 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거나
수신 메일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komalnet@naver.com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KIMA WEEK 2014 사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 TEL : 82,51,760,1143 FAX : 82,51,760,1134

Copyright (c) 2014 KIMA WEEK 2013. All Rights Reserved